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4분기 교역액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국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9.9조 위안(한화 약 1,888조 원)이며, 이 중 수출은 8.4% 증가한 5.7조 위안(약 1,087조 원), 수입은 0.2% 증가한 4.2조 위안(약 801조 원)임
- 대외무역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일반무역 수출입이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6.4조 위안(약 1,221조 원)에 달함. 아세안 국가간 수출입은 16.1% 증가한 1.6조 위안(약 305조 원)으로 전체의 15.8% 차지했고 EU, 미국, 일본, 한국간 수출입은 각각 1.3조 위안(약 248조 원), 1.1조 위안(약 210조 원), 5,464억 위안(104조 원), 5,285억 위안(약 101조 원)임
-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3.4조 위안(약 648조 원), RCEP 14개 회원국 간 교역액은 7.3% 증가한 3.1조 위안(약 591조 원)을 기록

자료원 : 환구망
<https://china.huanqiu.com/article/4CTLEn7Atlx>

2 中, 1~3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대폭 증가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3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7%, 26.2% 증가한 165만 대, 158만 6,000대로 시장점유율이 26.1%로 상승함
- 3월 상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43만 4,000대로 전월 대비 각각 37.1%, 34.2%,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4%, 17.4% 증가함
- 중국 경기 회복세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이 가동됨과 동시에 수출이 양호하여 상용차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4/12/content_25975172.htm

3 中, 제133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개막

-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가 4월 15일 광저우시에서 개막했으며, 전시면적은 118만 평방미터에서 150만 평방미터로 확대되었고 전시부스는 6만 개에서 7만 개로 증가함
- 오프라인 참가업체는 2만 5,000개사에서 3만 4,933개사로 증가했고, 신규 참가업체가 9,000개사가 넘었으며, 온라인 참가업체가 3만 9,281개사에 달함
- 산업 자동화와 스마트제조 전시구역은 올해 신설된 전시구역이며, 한 산업용 로봇기업 부스 관계자는 몇 시간 사이에 20여개 외국업체와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힘
- 해외 제품 전시면적이 3만 평방미터로 캐나다, 독일, 스페인 등 40여개 국가 및 지역의 508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226개 국가와 지역의 바이어가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교역회에 참가함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4/202304141230421064.html>

4 中, QFLP(적격 외국 유한파트너) 등 대외개방 시범정책 출시

- 올 들어 중국 내 많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하기와 같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산시성(陕西省)은 '산시자유무역시범구에서 QFLP(적격 외국 유한파트너) 시범사업 잠정 조치'와 업무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외자이용 시스템을 완비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킬 전망
- *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적격 외국 유한파트너) : 중국 정부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로 인정받은 외국 금융회사와 중국 현지 기업간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
- 얼마전 윈난성은 '중국(윈난)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심화 방안'을 발표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개혁, 개방, 혁신을 통해 발전을 촉진하고 자유무역시범구의 무역, 외자 및 신설 기업수가 연평균 50% 이상 증가를 실현할 계획
- 상하이리신(立信)회계금융학원 자유무역시범구연구원 샤오편화(肖本华) 부원장은 증권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각 자유무역시범구는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고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위주로 개방을 확대하여 대표적인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발언

- 2022년 중국 내 21개 자유무역시범구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7.5조 위안(한화 약 1,444조 원)으로 중국 전체 수출입의 17.8% 차지. 21개 자유무역시범구의 외자이용액은 2,225억 위안(약 42조 원)으로 중국 전체 외자이용액의 18.1%를 차지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3-04-12/A1681230975898.html>

5 中 25개 중의약 상장회사,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 1.3조 원 육박

- 중국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통화순(同花顺) iFind'에 따르면 4월 11일까지 25개 중의약 상장사가 2022년 재무제표를 발표했으며 25개사의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2,316억 위안(한화 약 45조 원), 연구개발 투자는 17.2% 증가한 68.5억 위안(약 1.3조 원)으로 매출의 3.0%를 차지했음
- 25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가 1억 위안(약 189억 원)을 기록했고 타이지 그룹(太极集团), 퉁런탕(同仁堂), 화룬39(华润三九), 윈난바이야오(云南白药), 바이윈산(白云山) 등 유명 제약회사는 연매출 100억 위안(약 1.9조 원)을 달성
-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중의약 산업분야 혁신지원이 강화되고 2023년 2월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중의약 등록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발표하여 심사가 더욱 규범화되었음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4-12/A1681230975920.html>

6 中 태양광 모듈 상장사, 2022년 경영 실적 양호

- Wind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1일까지 A주 주식시장에 상장한 절반 이상의 태양광 모듈 회사가 2022년 재무제표를 발표했는데, 이 중 태양광 모듈 출하량이 세계 5위권인 융기그린에너지(隆基绿能), 징커에너지(晶科能源), 트리나솔라(天合光能), 징아오테크놀로지(晶澳科技) 등 회사의 매출 증가율이 전부 50%를 상회함
- 징산경기(京山轻机) 관계자는 당사의 태양광 모듈 사업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 신규 주문량, 연말 기준 주문량, 매출과 순이익 모두 2021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힘
- 세신지칭(协鑫集成)의 2022년도 예상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62.7~84% 증가한 77~87억 위안(약 1.4~1.6조 원), 순이익은 101.9%~102.8% 증가한 3,680~5,500만 위안(약 69~104억 원)임
- 증권사 '귀타이쥘안(国泰君安)' 연구보고서는 업스트림 생산능력 증가로 태양광 모듈 가격은 대폭적 조정을 통하여 다운스트림 수요를 자극하여 2023년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4-12/A1681230975923.html>

7 외자기업, 상하이시에 대한 투자 활발

-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양호하게 전망하면서 중국내 신규 점포 오픈, 신규 공장 건설, 신규 플랫폼 구축, CEO 방중 등을 적극 추진중임
- 9일 테슬라는 상하이시에 에너지 저장장치 슈퍼 팩토리 건설 계획을 밝힘. 슈퍼 팩토리는 초대형 상업용 에너지저장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으로 초기에 연간 1만 대를 생산하여 에너지 저장규모는 40GWh에 달하며 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커버할 전망
- 코스트코(Costco) 아시아 장쓰한(张嗣汉) CEO는 올해 Ningbo점(宁波店), Hangzhou점(杭州店), Shenzhen점(深圳店)을 점차 오픈할 계획을 밝혔음
- ‘상하이시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 조치’에는 해외 고급인재와 전문인재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및 R&D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며,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주민(朱民) 주임은 올해 상하이시의 외자유치 활동 건수가 100회 이상, 1~2월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다국적 기업 11개사, R&D센터 5개가 설립되었다고 발표함

자료원 : 중국무역신문

<https://www.chinatradenews.com.cn/content/202304/12/c150393.html>

8 中, 반도체 산업 양극화 발전 추세

- 4월 16일까지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2022년 재무제표를 발표, 업스트림 웨이퍼 생산업체는 실적이 양호한 반면 일반소비자용 전자기기 시장 위축세로 다운스트림 반도체칩 설계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
-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中芯国际)의 경우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500억 위안(한화 약 9.5조 원), 순이익은 120억 위안(약 2.3조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웨이퍼 사업부문 매출이 41% 증가한 453억 위안(약 8.7조원)을 차지. 한편 최근 TSMC, UMC, 삼성 등 기업들은 프로세서, 네트워크칩, 센서, 마이크로 컨트롤, 전원관리 IC 등의 가격을 5~20% 인상시킬 계획
- 2022년 휴대폰, 컴퓨터 판매량 감소로 삼성, 애플 등의 대기업들이 주문을 취소하여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향후 일정 기간 반도체칩 산업 분야는 변수가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베이징상보망

<https://www.bbtnews.com.cn/2023/0416/472784.shtml>